



EBB 실모공방

2027학년도 대비

심화편 ADVANCED

2027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문논술 실전 모의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6문항 11소문항 · 80점 · 120분

2027 모의논술 가이드북의 문항 형식·배점 반영

공식 모의와 같은 채점 방식(체크리스트형·수준형)

2026년 최신 시사 통계 + 고교 교과서 제재

ADVANCED

실전 모의고사

제4회

이 파일은 EBB 실모공방이 자체 제작한 유료 교재입니다.

무단 공유를 보시면 구매한 곳의 EBB 실모공방 문의 창구로 알려 주세요.

© EBB 실모공방

제4회 실전 모의고사 · 인문계열 · 심화편

시험 시간 120분 (목표 풀이 시간 100분) · 6문항 11소문항 · 총 80점

수험번호

성명

응시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실전과 같이 시계를 두고 끝까지 풀어 보십시오.
2. 답은 반드시 답안지의 해당 문항 칸에 쓰십시오. 문제지에 쓴 답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3. 계산기와 사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그래프의 수치는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4. 각 문항의 ※ 조건(문장 수, 글자 수, 반드시 넣을 표현)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5. 답안은 검은색 필기구로 작성하십시오(연필 사용 가능).

문항 구성

문제	배점	문항 형태	답안 조건
문제 1	20점	표 해석 → 판단·선택 + 이유 쓰기	2문장 이내 / 3문장 이내, 필수 표현
문제 2	10점	반박 관계 요약, 빈칸 찾아 쓰기, 증감 판단	200자 이내 / 각 6자 이내
문제 3	10점	그래프 해석 + 제시문 핵심 주장	300자 이내
문제 4	17점	사상 빈칸 + 제시문 근거 서술	300자 내외
문제 5	13점	한국사 시간 순서 배열 + 용어·반론	100자 내외
문제 6	10점	상황 속 협상 발언 쓰기	200자 내외

답안 작성 요령

- 글자 수는 공식 모의 가이드북의 예시 답안과 채점 기준에 맞추어 씁니다. 서술형 답안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세고, 빈칸 단답의 '각 ○자 이내'는 띄어쓰기를 빼고 씁니다(공식 예시 답안은 '각 6자 이내' 빈칸에 '노령화의 추세'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지는 띄어쓰기·문장 부호·숫자 한 자리도 한 칸입니다.
- 발문의 가)·나)는 답을 나누어 쓰는 칸의 표시이며, 답안지의 같은 표시 칸에 씁니다. 제시문 (가)·(나)와는 다릅니다.
- '○○자 이내'는 한도를 넘기면 감점합니다. '○○자 내외'는 기준의 85~115%를 목표로 쓰고, 50%에 못 미치거나 150%를 넘으면 감점합니다.
- '찾아 쓰시오'는 제시문에 있는 말을 글자 그대로 옮겨 씁니다.
- 제목이나 서명을 쓰면 글자 수에 포함됩니다(쓰지 않아도 감점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제4회 v3.23

문제 1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20점

(가) 정부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가격 상한을 시장에서 정해지는 균형 가격보다 낮게 정하면 그 가격에 사려는 사람은 늘지만 팔려는 사람은 줄어, 사려는 양이 팔려는 양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생긴다. 그 가격에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암시장이나 나타나거나 품질이 떨어지기도 한다.

C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해 왔다. 시가 지정한 상한 주택에는 한 호에 청년 한 명이 들어가고, 청년에게 받는 월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상한 주택에 들어가려는 청년은 집보다 훨씬 많았고, 일부 임대인은 집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하였다. 상한 주택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이 늘면서 시의회에서는 시 살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상한 주택 밖의 원룸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청년들의 불만도 컸다.

C시는 2027년부터 주거 바우처를 함께 늘리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주거 바우처는 임대료를 시장에서 정해지는 대로 두고 청년이 스스로 고른 집의 임대료 가운데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한 주택에 사는 청년은 받을 수 없다. C시는 두 방식이 청년 주거 지원에서 차지하는 몫을 지원받는 청년 수로 따진다. 이러한 개편의 목적으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한 주택에 몰린 초과 수요를 완화하는 것, 청년 주거 지원에 드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 시장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다.

표 1 임대료 상한제와 주거 바우처의 비교		
구분	임대료 상한제	주거 바우처
지원 방식	상한 주택의 월 임대료를 상한 이하로 묶음	청년이 고른 집의 월 임대료 일부를 시가 지원
청년이 내는 월 임대료	상한 임대료	시장 임대료 - 1인당 월 지원액
시가 쓰는 돈	상한 주택 지정·관리 비용	지급 인원 × 1인당 월 지원액

표 2 C시 청년 주거 지원 현황과 개편안			
구분	항목	현행(2026년)	개편안(2027년)
임대료 상한제	상한 주택	3,000호	3,600호
	상한 임대료(월)	40만 원	40만 원
	상한 주택 입주 대기 청년	2,000명	(개편 뒤 다시 조사)
주거 바우처	지급 인원	1,000명	1,400명
	1인당 월 지원액	25만 원	20만 원
참고	원룸 평균 시장 임대료(월)	60만 원	(시장에서 정해짐)

- 1-1

표 2를 바탕으로, C시의 청년 주거 지원에서 주거 바우처 방식의 상대적 중요성이 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고, 나) 그 이유를 쓰시오. (10점)

※ 나)의 답안은 반드시 2문장 이내로 작성하고, 답안에는 반드시 "상한 주택"과 "바우처"라는 표현을 포함하시오.
- 1-2

표 2의 자료에 근거하여, C시의 개편안이 제시문에 제시된 목적(① 상한 주택의 초과 수요 완화 ② 시의 재정 부담 감소 ③ 시장 임대료 인하) 중 어느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하는지 가) 목적 하나를 고르고, 나) 이유를 쓰시오. (10점)

※ 나)의 답안은 반드시 3문장 이내로 작성하시오. 답안에는 표 2에 제시된 수치를 반드시 활용하고, "임대료"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시오. 답안에는 가)에서 고른 목적의 핵심어를 그대로 포함하시오.

■ 채점 공통 규칙

- 글자 수: 서술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세고(원고지 한 칸 = 한 글자, 숫자는 한 자리에 한 칸이라 3,600은 쉼표 포함 5칸, 248.5는 5칸, 띄어쓰기·문장 부호·기호도 한 칸), 빈칸 단답의 '각 6자 이내'는 띄어쓰기를 빼고 센다. 원고지 한 칸에 두 글자 이상 몰아 쓴 경우 칸 수가 아니라 글자 수로 다시 센다((나)는 3자, 4.35%는 5자).
- 문장 수: 'N문장 이내'를 넘기면 2점을 뺀다(공식 기준과 같음). 문장 수는 마침표·물음표·느낌표로 센다. 소수점(4.35)은 문장 끝이 아니다.
- 1-2 선택지 핵심어: 정답 선택지의 핵심 낱말 가운데 하나가 글자 그대로 들어 있으면 인정한다(공식 모의는 '경쟁 부재'와 '비효율성' 가운데 하나를 인정). 이 회차의 핵심 낱말은 '초과 수요'이다. 띄어쓰기·조사가 달라도 같은 낱말이면 인정하고, 비슷한 말로 바꾼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에 쓴 선택 표기는 핵심어로 세지 않고, 가)가 틀리면 핵심어는 0점이다.
- 빈칸 답(㉔ 등)은 답안지의 단답 칸에 따로 쓰므로 서술의 글자 수에 넣지 않는다. 서술 칸 안에 쓴 표지('반론:' 등)는 센다(예: 5-2에서 ㉔에 쓴 권문세족은 반박 글자 수에서 빼고, 반박 칸 안에 쓴 말머리는 센다).
- 찾아 쓰기 단답은 지문에 있는 말로 쓴다. 공식 모의가 '노령화의 추세' 자리에 '노령화'와 '인구 노령화'를 함께 인정했듯, 정답의 핵심 낱말을 살린 채 꾸밈말을 덜거나 더한 답과 빈칸 앞뒤 말이 겹친 답은 인정한다(예: 2-2 ㉔ '가게 신용 잔액'). 지문에 없는 낱말로 바꾼 답, 빈칸이 가리키는 것과 다른 대상(더 넓은 말, 다른 개념)을 쓴 답은 0점이다(예: 2-2 ㉔ '금리', ㉔ '가게 대출', 4-1 ㉔ '남의 것', ㉔ '외부의 자극'). 글자 수 조건이 있는 빈칸(2-2)은 한도를 넘기면 0점이다.
- 상한 규정은 최대 점수만 정한다. 다른 감점과 겹치면 낮은 쪽을 따른다.
- 반박 요약(2-1)은 공식 모의처럼 수준형으로 본다. 수치 인용은 요구하지 않는다. (나)에 있는 사실을 거꾸로 단정하면(예: (나)에서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을 '늘지 않았다'고 씀) 5점 문항은 3점, 4점 문항은 2점이 상한이다.
- 1-2의 수치는 표에 있는 수치나 그것으로 바르게 계산한 값만 센다. 잘못 옮기거나 틀리게 계산한 값, 단위가 틀린 값(%p를 %로 쓴 것)은 세지 않는다.
- 그림 해석(3번)은 수치를 쓰지 않아도 바르게 읽었으면 감점하지 않는다(공식 예시답안에도 수치가 없다).
- '○○자 이내'는 한도를 넘기면 1점을 뺀다. '○○자 내외'는 기준의 50%에 못 미치거나 150%를 넘을 때만 1점을 뺀다(공식 채점기준에는 분량 감점이 없고, 공식 6-1 예시답안은 기준의 132% 다). 연습할 때는 85~115%를 목표로 쓴다.
- 6번의 글 형식(존댓말, 인사, 받는 사람·보내는 사람, 맺음 말투)은 지문이나 발문이 요구한 것만 채점한다. 요구가 없으면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감점하지 않는다.
- 답과 무관한 글·표식(낙서, 자기 이름·학교 등)은 글자 수에서 빼고 채점하지 않는다. 실제 시험에서는 신원 표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쓰지 않는다. 글의 종류에 맞는 말머리나 서명('학생회 대표 준서입니다')은 글자 수에 넣는다. 인사말('안녕하세요')은 글자 수에서 빼고, 연설·발표처럼 문항이 청중을 부르는 말을 요구하면 본문으로 센다. 상황에 나온 인물 이름으로 글쓴이를 밝히는 것은 신원 표식이 아니다.
- 5-1 배열은 다른 항목과 구별되면 항목 이름을 줄여 써도 인정한다(예: 쌍성총관부, 철령위, 온건파). 두 항목에 함께 해당하는 줄임말을 쓰면 그 칸은 틀린 것으로 본다(예: 철령 이북 수복과 철령위 설치 통보에 함께 해당하는 '철령', 전민변정도감 설치와 과전법 시행에 함께 해당하는 '토지 개혁'). 모두 맞아야 5점이다(공식 기준).
- 필수 표현은 띄어쓰기 차이만 허용한다(상한 주택과 상한주택은 같은 표현이다). 1-2의 "임대료"는 상한 임대료, 시장 임대료, 월 임대료처럼 앞에 다른 말이 붙어 있어도 인정한다.
- 1-1·1-2의 가)를 틀리면 가)는 0점이다. 나)에서는 필수 표현과 표 수치 요소만 채점하고, 정답 방향을 전제하는 요소(논리·연결·핵심어)는 0점이다(공식 채점기준의 요소가 정답 방향을 전제한다).
- 감점은 그 문항의 요소 점수 합에서 빼며, 문항 득점은 0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문제 1 · 청년 주거 지원과 가격 규제

20점

1-1 표를 보고 바우처 비중 판단 + 이유 2문장

10점

■ 정답과 예시답안

- 가) 증가
- 나)

공백 포함 194자 · 공백 제외 157자 · 2문장 · 조건 2문장
상한 주택은 3,000호에서 3,600호로 600호(20%)
늘지만 바우처 지급 인원은 1,000명에서 1,400명으로
400명(40%) 늘어 더 빠르게 늘고, 지원받는 청년

전체는 4,000명에서 5,000명이 된다. 따라서 지원받는
청년 가운데 바우처를 받는 청년의 비중이 25%에서
28%로 높아지므로 바우처 방식의 상대적 중요성은
증가한다.

■ 채점 체크리스트

- ☐ 가) 증가로 판단했다 (감소·변화 없음은 0점) **3점**
- ☐ 나) "상한 주택"이라는 표현이 있다 **1점**
- ☐ 나) "바우처"라는 표현이 있다 **1점**